

문화예술



군산예술의전당 버스킹 공연

한여름 밤의 열기를 식혀줄 군산예술의전당 버스킹 공연이 내일 저녁 7시 야외광장에서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야외광장 버스킹공연은 군산예술의전당이 개관 3주년을 맞아 보다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자 기획된 공연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버스킹공연은 자연의 소리와 가장 많이 닮아 편안하며 접하기 쉬운 악기 오카리나로 군산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카벨레 팀'의 무대로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음악에서부터 동요, 가요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술의전당은 7월부터 야외광장에 특별무대를 설치해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펼치는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 중이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비응도 일원 26일~29일 해양소년단리갯다 대회 개최

제7회 해양소년단리갯다 대회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군산시 비응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주최하고 한국해양소년단전북연맹 주관, 군산시, 해양수산부 등에서 후원한다.

해양소년단리갯다 대회는 전국의 해양소년단 지도자와 대원, 지방연맹 및 외국인 참가자 등 2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종목별 기량을 겨루고, 해양안전체험, 해양생태체험, 레포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26일과 29일은 군산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해양테러스포츠 무료체험행사도 진행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영등1동주민자치회 독거노인 삼계탕 나눔 행사

익산시 영등1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남국수)는 21일 지역의 독거노인 20명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다.

영등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월부터 생활이 어렵고 고독한 어르신들을 위해 소의계축 1:1 결연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폭염으로 더욱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번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날 음식을 나누면서 어르신들의 고충을 듣고 위로와 따뜻한 마음을 내렸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앞으로 이웃과 정을 나누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소소하지만 훈훈한 일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귀순 동장은 "영등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봉사는 지역을 따뜻한 지역공동체로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농협 국토대청결운동

농협 군산시지부(지부장 김규창)는 21일 지역동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환경 개선을 통해 휴가철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정헌을 익산시장 취임 100일 성과·시정방향

“시민과 협력 행복도시 만들겠다”

익산시는 정헌을 익산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익산시장 취임 100일간의 성과와 시정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위한 시정목표 아래 안정, 공정, 열정을 바탕으로 시정을 빠르게 안정시켜 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따뜻한 행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첫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익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공익형 일자리 사업 발굴에 나섰으며, 7,000여명의 서민형 일자리를 창출했다.

기업유치를 시정 최우선과제로 삼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하여 (주)하림식품, (주)HS푸드 등 7개사의 분양계약을 통해 1,447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안전보호 융복합 사업, 합열 농공 LED집적화 단지

조성,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익산의 신성장 동력 마련에 힘쓰고 있다.

둘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시행 기반을 마련하여 조례제정과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며 농업행정수도 건설로 북부권 균형개발에 주력하는 등 농업의 집중 전문화를 시도하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 12번째로 지정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본격 추진,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왕궁리 유적정비 등 백제역사유적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정체성을 확립했다.

새활미를 공모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KTX익산역 역세권 개발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넷째,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하브와

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어린아동 확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운영 등 전 세대에 걸쳐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맞춤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열심에 일하는 공직분위기 확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효율성을 강조하고 주민간담회, 열린시민광장 개최 등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소통행정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후손들에게 행복한 도시 익산을 물려줘야할 막중한 책무를 위해 30만 시민의 에너지를 모으고 시민과 협력하여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나서

새만금환경청 등과 황소개구리·서양금혼초 등 제거

군산시는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와 함께 생태계 교란생물인 황소개구리, 서양금혼초, 가시박 제거에 나섰다.

최근 들어 금강하구변과 도심 내 공원 주변에서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생물인 서양금혼초, 황소개구리 등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용동 인근 주민들의 황소개구리 울음소리 민원이 제기되어, 시는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한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년간 제거작업을 실시한 결과 2만마리 정도 잡던 황소개구리

체와 울음소리가 울려 제거작업에서는 포획하는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금강하구변과 도심내 공원에 서식하는 서양금혼초를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거한 결과 급격히 감소가 확인됐으며,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는 가시박 개체수도 금강하구 주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마을 내 저수지에 서식하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황소개구리 포획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생태계 교란생물 중 식물생태

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시박 제거는 꽃이 피기 전부터 종자가 익기 전인 8월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인근에 주민은 "작년까지는 황소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소음이 시달렸는데, 올해는 울음소리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정기호 군산시 환경정책과장은 "지역의 고유생태계 파괴로 생물 다양성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퇴치사업을 펼쳐 생물 다양성 위협요인을 저감시킬 수 있는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폴리텍대학-대우세계경영연구회 글로벌인재양성 업무 협약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는 지난 20일 대학본관 회의실에서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과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정규과정(전문학사과정, 기능사과정)과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입학승인행제사업 등 취업 및 재취업교육,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들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국정과제인 고용률 80%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의 목적은 전방위 비즈니스 시대를 맞이하여 도전정신이 넘치는 미래를 이끌어갈 해외자향형 젊은 인재를 발굴 여학과 직무교육, 인성 등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 체계적인 멘토링 시스템을 통하여 차세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우리대학에서는 산업기술 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업무 및 생산업무 전 분야에 걸친 전문기를 양성하



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에 양 기관은 글로벌 청년인재양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사업 및 홍보 교육지원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기타 상호협력 필요 한 사안을 협의해 협력하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청년들의 해외취업 및 청년 사업가로서의 핵심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의 협력으로 향후 인재 양성사업이 활성화되는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원광대 치과대학 이진한 교수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원광대학교 (총장 김도중) 치과대학 치과보철과 이진한(사진)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최근에 열린 세계과학기술인대회에서 제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기술자의 연구 의욕과 연구 분위기를 진작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지난 1991년부터 과총 회원의 학회 학술지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소속 학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학회당 1편씩 추천된 우수논문

을 심사해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진한 교수는 2015년 대한학관

응용과학지에 공동저자인 주용훈(총장) 에미담치과 대표원장과 재재한 논문 '알지네이트 인상체에서 제작된 치과용 석고 모형의 정확도에 대한 삼차원 디지털 분석(Three dimensional accuracy analysis of dental stone casts fabricated using irreversible hydrocolloid impressions)'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 논문은 알지네이트 인상체의 보관조건과 보관시간에 따라 치과용 석고모형을 제작하고, 중첩에 의한 삼차원 디지털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측정방식에 의한 변형률뿐만 아니라 표면변위가 발생한 부위와 크기를 삼차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이진한 교수는 1999년 원광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7년부터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보철과에 재직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롯데주류 군산공장 캔라인 준공식

21일 (주)롯데주류 군산공장이 캔라인 준공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준공식은 이재혁 롯데주류 대표이사과 김은수 군산공장장을 비롯해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시장의, 최성오 전북주류도매협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롯데주류 군산공장에서 진행됐다.

(주)롯데주류는 이번 캔라인 준공식을 통해 과실 탄산주 및 탄산 위스키 생산으로 요즘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저도주, 탄산주 시장에서도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롯데주류 군산공장은 1945년 설립 70년 동안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인재 고용으로 지역 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는 관내 대표적인 한토키업이다.

특히 1999년부터 시작한 '내고장 사랑 캠페인'을 통해 관내 우수인재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물품지원 및 다양한 후원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군산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어린이행복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산시가 민선6기 핵심공약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어린이가 만족하며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26개 부서에서 28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사업을 보면 ▲어린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 신

문 발행'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인기 만화 캐릭터 이미지를 접목한 '어린이 안전 발자국 찍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건축하기시 보행안전관리계 획서 제출 의무화와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유아숲 체험공간 조성사업 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 영농체험 ▲우리 가족들의 토닥토닥 이야기 여행 등 다양한 정책이 보고됐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 꽃게 불법포획·유통업자 검거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지난 19일 꽃게 금어기간(8월21일~8월20일)에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여 시중에 유통·판매하려는 포획업자와 유통업자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불법 포획된 꽃게 약 160kg은 바다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 군산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김제시 사업장에서 00수산이라는 회집을 운영하는 A씨(60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집에서 꽃게탕을 판매하기 위해 육도면 무녀도 선착장에서 꽃게 금어기간 중 잡은 꽃게탕을 일련서도 포획업자 B씨(60세)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

약 160kg의 꽃게를 구입하여 유통·판매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금어기간 꽃게 불법 포획업자 B씨에 대해서는 이번 적발 건 외에 추려온 꽃게를 불법 포획하여 전문적으로 유통시킨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죄수사를 진행중이다.

군산경찰서 김동봉 서장은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금어기 기간을 설정했는데도 어획물을 불법 포획하고 유통시킨 지역 토착성 불법포획업자들에게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깨끗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